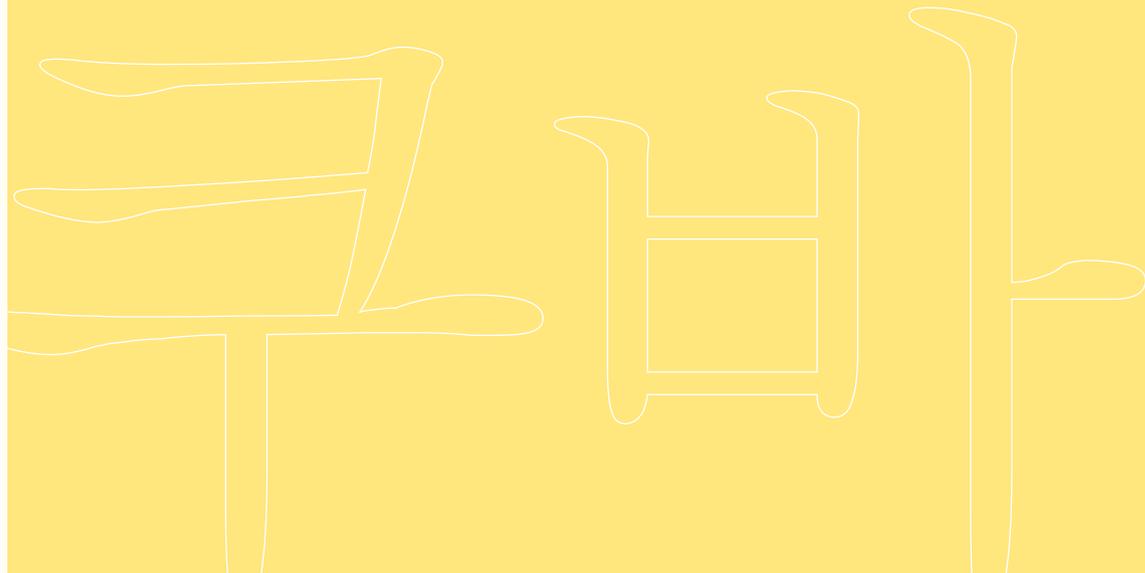


쿠바에서 문화사회를 엿보다

삶에 밀착한 쿠바의 문화공간

고길섭 문화비평가



원초적 얼굴성과 쿠바의 문화

얼마 전 인천에 있는 한 주민단체의 요청으로 문화사회를 위한 쿠바의 사례를 소개해준 적이 있다. 쿠바 여행 때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보고 느낀 바를 이야기하였다. 한 아주머니가 자연스럽게 웃어제끼는 아이들의 얼굴 표정에서 강렬한 감명을 받았다고 소감을 말해주었다. 그 ‘웃어제끼는 얼굴 표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으로 해방된 어떤 근원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얼굴성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사실 형언할 수 없는 그 얼굴성의 이미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는 흑인에서부터 백인에 이르기까지 널따랗게 분포된 피부색의 스펙트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몰라토(mulato)의 인종 혼합성도 아마 한몫 했을 테다.

실제로 쿠바의 거리에서는 아이들이건 어른이건 서로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끼리도 포옹하고 기쁘게 인사하며 잘 어울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여러 인종의 아이들이 어울려 놀 때는 정말 깜찍하다. 그들의 ‘웃어제끼는 얼굴 표정들’은 피부색의 경계 없이 서로 빛을 발하며 뒤섞이는 원초적 소통의 경지인 듯 보였다.

이는 1959년 카스트로의 혁명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 정책으로 실현된 인종차별의 폐지 효과에 기인하는 바 클 것이다. 혁명 이전의 부패정권에서는 부유한 백인들의 주거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등 인종차별이 심했고, 1950년대에만 해도 피부색이 분열의 이슈거리였다. 흑인들은 좋은 일거리를 갖기 어려웠고, 엘리트 클럽에의 진출이 허용되지 않았다. 쿠바에는 선인장을 닮은 아파하네그라라는 나무로 된 울타리를 볼 수 있는데, 이 울타리는 “흑인놈들이 다가오지 마”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한다. 팔마 소리아노라는 지방에 갔을 때 안내해준 자동차 운전수의 설명이었다. 지금은 그저 울타리일 뿐이란단다. 물론 인종차별적 요소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상적인 것은 ‘모두를 위한 평등’의 기치 하에 정부의 노력으로 인종차별의 잠재의 식적인 벽을 허물어왔다는 것이며,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되어왔다는 것이다.

쿠바에 머물면서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그들의 얼굴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들은 거부하지도 않고 경직된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웃는다는 것은 말 건네기이며 소통하자는 의미임을 잘 알고 있는 듯했다. 어쩌면 쿠바 사람들은 그걸 자연스레 터득하고 있을 터, 그들의 웃는 모습은 연기가 아니라 삶의 활력이다.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웃음들, 미치도록 정겹게 하는 표정들, 그 원초적 얼굴성에 이미 문화의 기원이 배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사람 사는 세상이야 지구촌 어디나 다 거기서 거기겠지만 그럼에도 다른 차이들을 갖는 기호체제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거니와 쿠바의 경우 상당히 두드러져 보였다. 그것은 그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표상되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개개인들의 행동양식은 사회주의적인 생활양식 따위와는 거리가 멀어보였다. 대개의 사람들은 매우 자유로웠고,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개방적이고 낙천적이고 열정적이며 문화적이다.

1990년대 이후 소련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미국의 해상봉쇄로 말미암은 물자 부족 등, 역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면서도 쿠바 정부는 문화지원은 축소하지 않았다. 노인,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였다. 물론 국가의 성장이 정체된 동안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잘 되



어 있는 의료 시스템 등이 무너진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쿠바는 도시농업의 실험과 개방적인 경제정책으로의 변화 등에 기반하여 곧바로 되살아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에도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이라는 책으로 알려져 있듯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친환경 유기농업의 메카가 되었다.

역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저들의 원초적 얼굴성이라는 문화의 바다에 기인했는지도 모르겠다. 그 문화의 바다는 순수 문화의 표면으로서만이 아니라 사회체제와 국가정책이 지향해온 생활양식의 흐름 및 제도와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이며, 그것이 곧 독특한 문화적 기호체제의 원천이자 효과가 되지 않았을까 한다.

사회주의 체제와 일상 생활문화의 간극

19세기 후반 쿠바의 시인이자 사상가이며 혁명가인 호세 마르티(José Martí)는 오늘날 쿠바에서 가장 존경받는 민족 영웅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체 게바라는 그 다음이다. 아바나의 혁명광장에는 호세 마르티 기념관이 우뚝 솟아 있다. 피델 카스트로는 1959년 혁명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기 집권을 하면서 현명하게도 자신을 우상화하지 않는다. 그 대신 쿠바에는 마르티가 존재한다. 마르티는 “단 한 사람이라도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도 편안하게 잠을 잘 권리가 없다”고 강변하여 소외받고 억압받는 민중, 혹은 가난한 소수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하였다. “이 땅 위의 가난한 사람들과 내 행운을 나누고 싶습니다. 산 속의 냇물이 바다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군요.”라고 말했다. 가난한 민중의 해방세상을 위해 혁명적 활동을 하면서 그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문화

쿠바에서 문화예술의 생산과 소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문화는 매우 자유롭다. 이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문화다”라고 짚어낸 쿠바의 민족 영웅 호세 마르티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라고 거침없이 짚어냈다. 어쩌면 그는 민중의 혁명적 사상을 실천하면서도 그 근원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인간의 존재를 갈망하였고, 그 자유로운 인간은 문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내다본 듯하다.

쿠바의 문화정책은 아마 이런 관점과 방법에 주목했던 것 같다. 사회주의 국가이되 사회주의적 양식으로 통합하지 않는 문화예술의 생산과 소통들,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문화는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나 표현이라곤 거의 찾아볼 수 없이 매우 자유로웠다. 아바나, 비날레스, 마탄자스, 산티에고 데 쿠바, 트리니다드, 바라코아, 산타 클라라, 시엔푸에고스, 피나르 델 리오, 관타나모, 카요 산타 마리아 등 쿠바의 전역에서 마주치는 쿠바 사람들을 볼 때 적어도 나의 시선으로는 그렇게 보였다. 아바나 거리 미술시장의 그림들 혹은 레스토랑, 바, 클럽의 음악들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적 삶’을 일상 생활문화로 강제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쿠바에서는 어떻게 사회주의 국가체제와 사람들의 일상 생활문화의 양자가 서로 다른 고집을 부리며 평행선을 마냥 달릴 수 있는 것일까. 이 모순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도대체 무엇이 쿠바의 사회체제를 지탱하도록 해왔을까. 나의 쿠바 여행은 늘 이런 질문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많은 대화와 관찰과 고민의 결과, 사회주의 국가체제라는 거시공간(계획-통제 영역)과 사람들의 일상 생활문화라는 미시공간들(개방-자유 영역)이 이질적으로 존재하고, 이 두 공간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공간들(소통-평등 영역)이 존재함으로써, 1990년대의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

을 거치면서도 쿠바라는 사회가 지속되어 왔고 특유의 문화적 역동성을 지속해오지 않았나 한다.

나의 제한된 경험으로 분석해볼 때 쿠바사회에서의 중요한 매개공간은 교육·의료·탁아 등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와 연계된 사회봉사인구정책, CDR(Comite de Defensa de Revolucion·혁명방어위원회)이라는 풀뿌리 주민조직공간, 지역화된 ‘까사 데 꼴뚜라’(Casa de Cultura)의 문화공간, 주민참여 커뮤니티들이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상상될 수 있는 것인데, 특히 그와 연계하여 사회봉사인구정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쿠바는 의료정책과 마찬가지로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이 무상제도이다. 무상교육 정책은 ‘프라바하르 소시알’ 제도와 ‘세르비시오 소시알’ 제도로 연계되는데, 이는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 후 1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가의 사회공공적 차원에서 사회적 자산으로 학교 교육을 시키고, 따라서 그 혜택을 받는 모든 졸업자들은 일정기간 사회에 공공봉사를 함으로써 사회적 환원 시스템에 따르고 있다. 공교육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공교육이란 사교육을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공교육을 통해 배출된 인력들이 사회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도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상교육 정책은 사회 주체성의 형성에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쿠바 전역에 동네마다 조직된 CDR은 풀뿌리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59년 쿠바혁명이 성공하자 미국은 혁명세력을 와해시키려는 반혁명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행위가 1961년 4월 17일 1500명의 미군이 피그만

해안에 침투한 일이다. 카스트로는 이들을 물리치고 체 게바라와 함께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제국주의의 첫번째 실패”라고 규정지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쿠바혁명을 수호하기 위해 풀뿌리 주민 조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CDR이다. CDR은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끊임없이 혁명성을 강화하고 반복하는 이데올로기 행사의 주관자로서보다, 구성원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공유나 상담, 지역참여 등의 활동을 하는 대화의 장이자 기초 커뮤니티로 기능한다.

문화 커뮤니티로서의 까사 데 꼴뚜라

쿠바에는 ‘까사 데 꼴뚜라’(Casa de Cultura)라는, 직역하면 ‘문화의집’이 있다. 외형적으로는 한국의 ‘문화의집’과 유사하나 그 역사나 내용에 있어서는 상이하다. 1960년대 초 극장 연출가인 올라 알롱소라는 사람이 문화모임을 가지면서 까사 데 꼴뚜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혁명정부는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혁명 직후 까사 데 꼴뚜라를 전국적으로 조직하였다. 지역마다 까사 데 꼴뚜라를 세워야 한다고 했으며, 실제로 산골까지도 찾아다니며 공연행사를 했다. 현재는 전국 각 주에 주센터와 지역 까사 데 꼴뚜라가 조직되어 있으며, 긴밀한 네트워크망을 형성하면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까사 데 꼴뚜라는 문학, 댄스, 연극, 영화, 음악, 미술, 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관장하며 지역 내의 전문가들과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서로 협력하여 다양한 문화사업들을 계획, 실행한다.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은 물론이고 문화예술적 참여의 폭을 넓히는 등 지역 문화예술 활동

(교습, 공연, 교육 등)의 중심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재즈 페스티벌과 같은 문화예술축제들도 까사 데 꼴뚜라가 주관하여 조직한다고 한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이다. 매해 매달 계획을 세워 수행하며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면, 국가에서는 준비과정을 지켜보면서 예산을 지원해준다.

까사 데 꼴뚜라는 특히 공장, 병원, 감옥 등 지역 사회 단위의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정례화하면서 예술적 치유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준다. 예를 들어, 쿠바에서 운영이 가장 잘 되는 산타 클라라시의 연극 공연 담당자는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공연을 하여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목요일마다 심장병원에서도 공연한다. 에이즈환자, 청각장애자, 신체장애자 등도 주목하여 찾아다닌다. 특히 XP병(햇빛을 보면 안 되는 병) 환자가 있는 구역에서는 이들을 위해 저녁과 새벽에 공연을 한다. 공연은 환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몇 달을 지내고 나서는 함께 공연을 하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발 없는 여자가 공산당 지도원이자 미술 전문가에게 지도를 받아 나중에 미술대학에 진학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5세부터 14세까지 9년을 연속해서 한 사람의 교사가 일관된 교육을 담당하면서 학생들의 미술적 잠재성을 발견하고 그 역량을 키워준다. 교사는 지속적으로 관찰하다보니 아이들마다의 고유한 색깔표현 방식을 알게 되고 심리적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아이가 불안정한 그림을 그려 상황을 파악해보니 부모가 이혼한 환경에 처해졌음을 알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왔다는 사례도 있다. 음악 전문가는

가령 누군가 거리에서 자기 노래를 부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지적하면 이를 수정하는 것을 도와준다. 사람들은 자기 재질에 따라 커뮤니티 문화예술 활동을 선택한다. 까사 데 꼴뚜라 활동가들은 아이들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못하면 다른 재능이 있는지를 관찰하여 소질이 있는 분야를 발견하여 양성해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까사 데 꼴뚜라의 지역소통망에의 참여방식이다. 나는 까사 데 꼴뚜라가 그 자체의 지역문화 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공간의 성격은 사회주의 국가체제라는 거시공간과 시민들의 문화생활이라는 미시공간 사이의 간극을 메꾸고 연결하는 매개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까사 데 꼴뚜라는 쿠바 사회의 문화적 장점인 커뮤니티로서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한다. 실질적인 지역문화예술 총본부로서 전문가 집단과 지역주민들 사이의 교량 역할을 세밀하게 하며,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로서 조직되고 있는 매개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문화다

마르티가 말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문화다”를 달리 해석하면, 혁명을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은 문화이며, 실제로 쿠바에서 혁명이 계속된다고 할 때 이는 본래적 의미의 혁명성의 지속이라기보다 문화적 혁명의 지속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해 매개공간들을 통해 혁명은 계속되는 것이고, 그것은 목적의식화된 사회주의적 혁명성이 아니라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일상적 혁명이며, 따라서 사람들과의 일상적 욕망과 관계를 개선하는 혁

명은 계속되는 것이다.

까사 데 꼴뚜라의 경우도 좁은 의미의 예술활동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쿠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삶의 전체 과정으로서 문화의 의미가 중시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사회주의적인 문화양식으로 코드화하지 않는 독특함이나 사회적 자산으로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 등은 높은 수준의 공연을 저렴하게 향유할 수 있다는 정책적 배려보다도 더 소중한 삶의 문화원리일 것이다. 이것은 문화정책이 결국 ‘문화’ 영역 내에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사회구성의 원리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의 세기’임을 선언하면서 시작된 김대중 정부의 문화정책이 현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는 문화를 상품화된 논리로 재단하려는 어리석음으로 돌변하고 있다. 문화는 투기가 아니라 인간 사회를 가장 자유롭게 할 지향점이다.

글쓴이 **고길섭** 문화연대 편집위원장을 지냈고, 지금은 <문화과학> 편집위원으로 전라북도 부안에서 지역문화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소수문화들의 정치학>, <어느 소수자의 사유>, <문화비평과 미시정치>, <스물한 통의 역사 진정서>, <문화읽기> 등이 있다.